

## 원주~제천 복선전철 공사 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노병국)는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의 전철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은 기존 중앙선 서원주~제천 단선 구간 56.3km를 직선화하고 이 중 44.1km를 복선전철화하는 공정이다.

공사가 이뤄지면 원주~제천 간 열차 운행 시간이 40분에서 19분으로 21분 단축된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mailto:hyyoo@kwnews.co.kr)

## 원주~제천 복선전철 착공

### 대용량 전력공급 운행시간 단축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의 전철공사가 28일 착공됐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기존 중앙선 서원주~제천 단선구간 56.3km를 44.1km의 복선전철로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력공급 방식을

기존 150km 미만에만 사용하던 저속·저용량(2만5000v급)에서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고속·대용량(5만0000v급)으로 개량해 열차 운행 시간이 40분에서 19분으로 21분 크게 단축된다. 저속·저용량 전력공급방식은 국내 노선 중 원주~제천 구간만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저속·저용량 전력공급 방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태욱